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차현수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Hyun-su Cha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SNS 중독 경향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료는 전라남도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지로 설문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23.0 program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OVA,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SNS 중독 경향성 평균점수는 2.16 ± 0.54 점 (범위:1-5점) 이었다. 대학 생활 적응 평균점수는 3.13 ± 0.39 점 (범위:1-5점) 이었다. 대학 생활 적응에 SNS 중독 경향성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대학 생활 적응의 하위영역 중 '대학에 대한 애착'에 SNS 중독 경향성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에 2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SNS 중독 경향성이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SNS 중독 경향성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SNS 중독 경향성 기준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site (SNS) addiction on th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adjust to university life and to generate the basic data to develop programs that could improve this abilit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that were filled out by 255 nursing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located in Jeollanam-do and Gyeonggi-do from May 16, 2020 to May 20, 2020.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scores of SNS addic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were 2.16 ± 0.54 (range:1-5) and 3.13 ± 0.39 (range:1-5) respectively. SNS addiction accounts for 27% of the variance i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he study concluded that SNS addiction negatively affec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o ensure better adjustment a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treat SNS addiction early. Also, a study will have to be conducted to determine the time when tendency toward SNS addiction becomes apparent, to initiate treatment.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Nursing, Adjustment, Internet

본 논문은 2020년도 세한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su Cha(Sehan Univ.)

email: cha-hyn-su@hanmail.net

Received August 3, 2020

Revised October 12, 2020

Accepted November 6, 2020

Published Nov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SNS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9월 기준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1.8%로, 10년 전 대비 16.3%p, 5년 전 대비 13.4%p 증가하였다[1]. 인터넷 이용자의 95.4%가 인스턴트 메신저·SNS·이메일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고 [1], SNS 이용률은 연령별로 20대(92.8%), 30대(86.0%) 40대(75.6%), 50대(57.0%) 순이었다. 주 평균 20회 이상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반(55.5%)을 차지했다. SNS 이용 시간은 주 평균 23.7회(일 평균 3.4회), 1시간 2분(일평균 약 9분)이었다[2].

인터넷을 통한 SNS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SNS는 온라인상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확장하도록 하는 잇점을 지녔기 때문이다[3]. 그러나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신 건강과 사회 건강이 악화된다. 심한 우울증, 불안, 괴로움, 불행, 삶에 대한 불만으로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4-6] 부정적인 개인적 관계 [7]로 사회 건강이 악화된다. 지속적으로 3년 이상 과도하게 SNS를 사용하면 잠재되어 있던 SNS 중독이 발현된다고 보고되었다[8].

SNS 중독이란 SNS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SNS에 접속하거나 이용하려는 강한 동기에 이끌리고, SNS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다른 사회 활동, 공부, 직업, 대인관계, 심리적인 건강, 웰빙 등을 손상시키는 것을 이른다[9]. SNS중독은 약물중독이나 행동중독과 마찬가지로 충동을 억제하는 뇌 부위 중 양쪽 편도체(amygdala)의 회백질이 감소되는 변형이 오고[10], 5가지 전형적인 중독 증세를 보인다. 5가지 전형적인 중독 증세로 기분 좋아짐(SNS에서의 참여는 정서적 상태의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함), 과민증(SNS 사용에 대해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선점), 허용성(시간이 지남에 따라 SNS 사용의 증가), 금단증상(SNS 사용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불쾌한 신체적, 감정적 증상을 경험함), 갈등(SNS 사용으로 인해 뒤따르는 대인관계 문제), 재발(중독자는 금욕 기간이 지난 후 과도한 SNS 사용으로 빠르게 되돌아감) 등을 보인다[11,12].

현재는 SNS 중독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정신 질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최근 행동 중독으로 분류된다 [13,14]. SNS 중독은 행동중독 중 기술중독으로 소분류

된다[15]. SNS 중독이 포함되는 기술 중독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만연해 있다[16]. 기술 중독의 일종인 SNS 중독은 5가지 인터넷 중독인 컴퓨터 중독(컴퓨터 게임 중독), 정보 과부하 중독(웹 서핑 중독), net 강박 중독(온라인 도박, 온라인 쇼핑 중독), 사이버 성 중독(온라인 포르노, 온라인 성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온라인 관계에 대한 중독)중에서 사이버 관계중독으로 분류된다[17].

SNS 중독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인지 행동 모델[18]과 사회적 기술 모델[19] 2가지가 있다. 인지 행동 모델은 잘못된 SNS 적응 인지 및 사회적 고립이 SNS 중독을 유발한다고 가정하고, 결과적으로 저하된 충동 제어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고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키고, 자기 가치를 감소시키는 등의 행동적 증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18]. 사회적 기술 모델은 개인의 실제 생활에서의 사회적 통제 능력 부족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상호작용보다 가상의 통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SNS 중독을 유발한다고 가정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또는 개인적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19].

SNS 중독은 최근 개념이라서 SNS 중독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내려지지 않았고 진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15] SNS 중독 경향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SNS는 최근 발생되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SNS 중독 경향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SNS 역사의 시작은 1997년 첫 번째 SNS인 6Degree가 나타나면서 부터이다. 6Degree는 세상 사람들이 6단계만 거치면 모두 연결되어[20], 사회를 점점 상호 연결되는 "작은 세계 문제"로 간주하였다. 2004년에는 페이스북이 나타났는데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가 되었다[21].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3억 4천만명이 SNS를 사용하게 되었다[22].

SNS 중독 경향성의 예측 변인은 생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측 변인으로 생리적 욕구인 우울과 외로움[23]이 있고, 사회적 욕구인 의사소통 불안[24], 무력감과 규범상 실감[25], 소속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26] 등이 있고, 자아실현 욕구인 부정적인 자아정체성[27], 자아 정체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26] 등이 있다.

대학 생활 적응이란 대학생이 대학 생활과의 상호작용을 하여 자신의 욕구와 대학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말한다[28].

대학 생활 적응은 대학 생활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이며 이는 성숙한 성인이 된 이후 개인적, 사회

적 삶에 대한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9].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하부요인은 학문적응, 사회 적응, 정서적응, 신체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등으로 구성된다.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하부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하부요인 중 학문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30]가 있었다.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하부요인 중 학문적응, 사회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효능감[31]이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로 간호학과 대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간호학과는 대인 간 의사소통에 능통한 간호사를 양성해야 하는데[32] SNS 중독 경향성이 있으면 대면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은 청소년 말기에서 성인 초기로 이행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를 겪는다[33]. SNS 중독 경향성이 크면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SNS 사용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20대[2]이고 연령대가 20대인 간호학과 대학생도 SN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20대는 부모와 교사의 간섭이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줄어들고 시간적 여유 있어서 SNS 사용이 제일 많다.

최근 우리나라의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연구는 도입단계로 SNS 중독 경향성 실태조사 연구[34-36], SNS 중독 경향성의 예측 변인을 찾는 연구[23,25,26,37]가 주를 이루고 그 외에 인터넷 중독과 SNS 중독의 차이를 구별한 연구[38]도 있었다. 이제는 20대의 SNS 중독 경향성이 그들이 달성해야 하는 발달과업의 하나인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3편의 연구[39-41]에 불과하다.

3편의 선행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는 연구 도구로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나 스마트폰 중독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적절성이 떨어진다[39,41]. SNS 중독 경향성은 인터넷 중독의 하위개념이고 스마트폰 중독의 상위개념이라서 연구 도구로 인터넷 중독 측정 도구나 스마트폰 중독 측정 도구를 사용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측정이었다. 둘째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 생활 적응의 하부영역에 미치는 영

향이 잘 드러나지 못한 점이다[40]. 대학 생활 적응 전체만으로 파악할 경우 대학 생활 적응 하부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42]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측정에 타당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생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추후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전 학년의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도 소재한 S 대학교와 경기도 소재한 D 대학교 두 대학교의 간호학과 전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20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편의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한 기간이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컴퓨터, 인터넷, SNS 등을 사용하여 학교 생활 적응을 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

을 경험한 직 후 이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모집단 1000명, 신뢰구간 95%, 오차범위 5%로 계산했을 때 나온 278명으로 정했는데 이 표본수는 G*Power(3.0.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대학생의 SNS 중독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와 Kim [18]에 따라 효과크기 .15(medium), 독립변수 6개(일반적 특성 5개, SNS 중독 경향성)로 계산하였을 때,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인 146명 이상을 충족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300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65명이 응답하였고 불충분한 대답을 한 10명을 제외한 255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앞서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였다(SH-IRB 2020-53).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학생들에게만 설문동의서를 받고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 내용은 익명 처리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한 후 설문 조사 내용을 폐기 처분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SNS 중독 경향성

Jung과 Kim [43]이 개발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SNS 중독 경향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 영역(일상 생활 장애 및 조절실패:7문항, 몰입 및 내성:7문항, 부정 정서의 회피:5문항, 가상 세계 지향성 및 금단:5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부여하였다. 전체 SNS 중독 경향성의 가능한 최소점수는 24점, 가능한 최대점수는 96점이다. Jung과 Kim [43] 연구에서 Cronbach' α =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95 이었다.

2.4.2 대학 생활 적응

Baker 등 [42]이 개발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이하 SACQ)를 번안·수정하여 문항 내적 일관성 검사와 요인분석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Lee [44]의

SACQ를 사용하였다. Lee [44]의 SACQ는 5개의 하위 영역(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영역은 5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여 각 하위영역의 가능한 최소점수는 5점, 가능한 최대점수는 25점이다. 전체 대학 생활 적응은 5개의 하위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이므로 가능한 최소점수는 25점, 가능한 최대점수는 125점이다. Baker 등 [4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92-.95이었고, Lee [44]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 .75이었다.

2.5 자료분석

자료는 SPSS/WIN 23.0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고,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방법의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교 1-4학년생이므로 연령이 평균 21.94(\pm 1.60)세 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206명(80.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2학년 91명(35.7%), 4학년 78명(30.6%), 3학년 44명(17.3%), 1학년 42명(16.4%)순이었다. 사용하는 SNS 종류는 페이스북이 146명(57.3%), 인스타그램이 91명(35.7%), 트위터 16명(6.3%), 카카오토키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각각 1명(0.4%)이었다. SNS 이용시간은 2-3시간이 64명(25.1%), 3-4시간이 58명(22.7%), 1시간 미만이 49명(19.2%), 4시간 초과가 45명(17.6%), 1-2시간이 39명(15.3%)순이었다. SNS 사용을 중단하고 싶은 이유는 "학업중력이 저하되므로"가 113명(44.3%), 기타가 61명(23.9%), "스마트폰 중독이 생겨서"가 46명(18.0%), "타

인과의 격차를 확인하게 되므로 “가 21명(8.2%), “대인관계가 소홀해지므로”가 14명(5.5%) 순이었다. ‘기타’로는 “타인의 댓글에 마음이 상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싫어서” 등등이 있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55

Variables	Category	N(%) Mean±SD
Age	-	21.94±1.60
Gender	Male	49(19.2)
	Female	206(80.8)
Grade	Freshman	42(16.4)
	Sophomore	91(35.7)
	Junior	44(17.3)
	Senior	78(30.6)
Type of SNS used	Facebook	146(57.3)
	Twitter	16(6.3)
	Kakao Story	1(0.4)
	Instagram	91(35.7)
	Not used	1(0.4)
SNS usage time (hour)	<1	49(19.2)
	1-2	39(15.3)
	2-3	64(25.1)
	3-4	58(22.7)
	>4	45(17.6)
Why you stop using SNS?	Because of lack of academic concentration	113(44.3)
	Occurs to smartphone addiction	46(18.0)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ade away	14(5.5)
	I saw the difference with others	21(8.2)
	Etc.*	61(23.9)

* I am offended by other people's comments.

* I don't like people posting comments

3.2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 등의 정도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은 1-4점 범위중 평균 2.16점(±0.54)이었고 총점 24-96점 범위중 평균 51.89점(±12.98)이었다.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은 1-5점 범위중 평균 3.13점(±0.39)이었고 총점 25-125점 범위중 평균 78.27점(±9.68)이었고 대학 생활 적응의 하부영역들은 1-5점 범위중 학문적응은 평균 2.91점(±0.49), 사회적응은 평균 3.37점(±0.55), 정서적응은 평균 3.13점(±0.39), 신체적응은 평균 2.99점(±0.51), 학교 애착은 평균 3.22점(±0.46)이었다(Table 2).

Table 2. SNS addiction tendency,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N=255

Variables	Domain	Mean±SD	Range
SNS addiction tendency	Total	2.16±0.54	1-4
	Total	51.89±12.98	24-96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cademic adjustment	2.91±0.49	1-5
	Social adjustment	3.37±0.55	1-5
	Emotional adjustment	3.13±0.39	1-5
	Physically adjustment	2.99±0.51	1-5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3.22±0.46	1-5
	Total	3.13±0.39	1-5
	Total	78.27±9.6	25-125
	Total	8	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

3.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t=3.19, p=.043$), 학년($F=3.64, p=.013$), SNS 사용시간($F=4.73, p=.001$)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더 높고, 3학년이 4학년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더 높고, SNS 사용시간이 1시간 이상이 1시간 미만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더 높았다(table3).

3.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성별($t=4.49, p=.012$), 학년($F=3.65, p=.013$), SNS 사용을 중단하고 싶은 이유($F=3.44, p=.009$)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4학년이 1,2학년보다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고, SNS 사용을 중단하고 싶은 이유에서 ‘기타’가 ‘타인과 차이점이 보여서’보다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높았다(table3).

Table 3. SNS addiction tendency and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5

Variables	Category	SNS addiction tendency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48.23±13.87	3.19 (.043)	80.60±9.29	4.49 (.012)
	Female	52.66±12.63		77.63±9.61	
Grade	Freshman ^{a)}	53.73±11.03	3.64 (.013) c>d	75.90±8.13	3.65 (.013) a,b<d
	Sophomore ^{b)}	52.60±14.04		76.97±8.90	
	Junior ^{c)}	55.27±11.72		78.16±11.76	
	Senior ^{d)}	48.10±12.73		81.08±9.60	
Type of SNS used	Facebook	52.49±12.62	1.41 (.230)	77.66±8.68	.766 (.548)
	Twitter	49.56±15.31		81.63±12.03	
	Kakao Story	65.00		79.00	
	Instagram	51.46±13.01		78.58±10.77	
	Not used	27.00		85.00	
SNS usage time (hour)	<1 ^{a)}	46.53±13.99	4.73 (.001) a< b,c,d,e	76.98±11.02	1.41 (.230)
	1-2 ^{b)}	48.10±12.59		79.51±8.71	
	2-3 ^{c)}	54.16±11.41		78.89±9.56	
	3-4 ^{d)}	54.02±12.18		79.67±9.26	
	>4 ^{e)}	55.07±13.22		75.93±9.44	
Why you stop using SNS?	Because of lack of academic concentration ^{a)}	53.40±13.05	1.04 (.389)	77.52±9.25	3.44 (.009) d<e
	Occurs to smartphone addiction ^{b)}	51.22±11.67		79.17±8.56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ade away ^{c)}	53.86±10.93		77.64±11.93	
	I saw the difference with others ^{d)}	49.05±14.91		72.67±10.55	
	Etc. ^{e)}	50.08±13.50		81.07±9.68	

* I am offended by other people's comments.

* I don't like people posting comments

3.4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 하부영역중 학문적응($r=-.097, p=.122$), 사회적응($r=-.019, p=.766$), 정서적응($r=-.079, p=.211$), 신체적응($r=-.078, p=.213$)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대학에 대한 애착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182, p=.004$) 대학 생활 적응 전체와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33, p=.036$)(Table 4).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SNS addiction tendency r(p)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cademic adjustment	-.097(.122)
	Social adjustment	-.019(.766)
	Emotional adjustment	-.079(.211)
	Physically adjustment	-.078(.213)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182(.004)
	Total	-.133(.036)

3.5 일반적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학

Table 5.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Domain	Dependent Variable	β	SE	t(p)
Age	-	Physically adjustment	.130	0.100	2.09(.038)
		Total	.156	0.377	2.51(.013)
Grade*	Freshman	Total	-.252	2.703	-2.45(.015)
Why you stop using SNS?***	I saw the difference with others	Total	-.174	2.177	-2.81(.005)
SNS addiction tendency	-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032	0.011	-2.93(.004)
		Total	-.098	0.047	-2.11(.036)

Adj R²=0.27, F(p)=4.45(.036)

Reference group :Grade*=Senior

Reference group :Why you stop using SNS?***=Etc.

년, SNS를 중단하고 싶은 이유), SNS 중독경향성 등을 독립변수로, 대학 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 전에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증한 결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344~0.682로 1 이하이면서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147~2.905로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독립변수들은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2.030으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45, p=.036)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²)는 27%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β =.156, p=.013), 학년 더미변수(β =-.252, p=.015), SNS를 중단하고 싶은 이유 더미변수(β =-.174, p=.005), SNS 중독 경향성(β =-.098, p=.036) 등이었다. 대학 생활 적응 하위영역중 신체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β =.130, p=.038)이었고 '대학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NS 중독 경향성(β =-.032, p=.004)이었다.

연령은 대학 생활 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4학년이 1학년보다 대학 생활 적응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쳤고, SNS 중단하고 싶은 이유로 '기타'가 '타인과의 격차를 확인하게 되므로'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미쳤고,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 대학 생활 적응 등을 파악하고,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2020년도에 조사한 본 연구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 정도를 2017년도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 정도를 조사한 선행연구[37]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결과는 평균 2.16점으로 선행연구[37]결과 평균 2.08점보다 높았다. 이는 2017년보다 2020년에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 것으로 SNS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최근 실태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성 정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45]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결과가 선행 연구[45]의 SNS 중독 경향성 점수 1.36점보다 더 높았다. 이는 20대인 대학생이 10대인 초등학생보다 SNS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65.4%이었고 학업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SNS를 중단하고 싶어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44.3 %이었다. 유럽 6개국(그리스,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루마니아, 아이슬란드)의 청소년 10,930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6]에서 SNS를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를 내면화시키고 학업 성과를 떨어뜨린다고 보고한 결과에 미루어보아 현 간호대학생은 과도하게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40,41,47,48]와 비교해 보면 [40]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상이했고 [41,47,48]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동일하였다. 성별에 따라 SNS 중독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학년이 4학년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40,41]와 비교해 보면 상이한 결과였다. 본 연구결과는 4학년이 국가고시를 대비하여 학업에 전념하기 때문에 3학년보다 SNS 사용시간이 적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SNS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SNS 중독 경향성이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 [47]의 SNS 사용시간이 길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커진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4학년이 1,2학년보다 대학 생활 적응을 잘 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간호학과생은 임상실습 전인 간호학과 1,2학년보다 간호학과에 잘 적응하려는 자세의 변화가 있었다는 [4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SNS를 중단하려는 이유중 '기타'가 '타인과의 격차를 확인하게 되므로'보다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 생활 적응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을 조사한 선행연구[39]와 비교할 때 본 연구결과는 평균 3.13점으로 선행연구[39]결과 평균 3.15점과 비슷하였고 하위영역 점수가 사회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학업적 적응 순으로 낮아지는 점은 일치하였다. 대학교 학업이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대학생이 학업적 적응하는데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학업적 적응의 어려움이 간호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 하부요인 중에서 '대학에 대한 애착'과 전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40]와 일치하였고 선행연구[41]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엇갈린 결과들이 보고되는 이유는 SNS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는 연구 도구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40]는 대학생 SNS 중독 경향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선행연구[41]

는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도구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41]는 SNS 중독 경향성을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도구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타당도 결여로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SNS가 온라인상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대학에 대한 애착 관계를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184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연구[50] 결과 SNS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실생활에서 소속된 공동체와는 덜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실제 소속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 연구[51]와 일치한다. 이는 SNS 중독 경향성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SNS를 하는데 할애하기 때문에[52] 오프라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53,54]와 일치한다.

SNS 중독 경향성이 클수록 대학 생활 적응을 못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 적응 프로그램에 SNS 중독 경향성 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SNS 중독 경향성을 치료하면 대학 생활 적응중에서 특별히 '대학에 대한 애착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SNS 중독 경향성 치료는 약물중독과 달리 금욕(완전한 SNS 사용 중단)보다는 SNS를 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주된 치료 목표로 세워야 한다[55]. 현재 인터넷과 SNS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SNS 중독 경향성 치료로 금욕(완전한 SNS 사용 중단)은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SNS 중독 경향성 치료로 대학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SNS 중독 경향성은 2.16(± 0.54)점, 대학 생활 적응은 3.13(± 0.39)점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향성 차이는 성별, 학년, SNS 사용시간

등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 차이는 성별, 학년, 'SNS를 중단하려는 이유'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대학 생활 적응 하위영역중 신체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beta=.130, p=.038$)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156, p=.013$). 학년 더미변수($\beta=-.252, p=.015$)와 SNS를 중단하고 싶은 이유 더미변수($\beta=-.174, p=.005$)는 대학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SNS 중독 경향성은 대학 생활 적응 하위영역중 '대학에 대한 애착'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beta=-.032, p=.004$) 대학 생활 적응 전체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098, p=.036$), 일반적 특성(연령, 학년, SNS를 중단하고 싶은 이유)과 SNS 중독 경향성 등의 변수는 대학 생활 적응 전체 변량의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SNS 중독 경향성을 치료해야 할 필요성은 제시하였으나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중독 경향성 cut off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SNS 중독 경향성 cut off를 제시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해 인터넷 중독척도나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연구 도구로 사용해서 연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결여되었던 연구에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연구도구로 사용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연구로 전환시켜, SNS 중독 경향성 실태 파악을 정확히 했다는 점이다. 성별, 학년, SNS 사용시간이 SNS 중독 경향성에 차이를 갖게하며 학년, SNS를 중단하려는 이유가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를 갖게 함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또한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SNS 중독 경향성이 대학 생활 적응 하위영역 중 '대학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특별히 1,2학년에 재학중이고 SNS 사용시간이 1시간 이상인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SNS 중독 경향성 치료가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K. Y. Kim, 2019 Internet Usage Survey Results Announcement [Interne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c2020[cited 2020 February 26], Available from: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do](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AyNA) (accessed May 21, 2020)
- [2] G. N. Lee, Y. J. Choi, Y. J. Yeon, 2017 Internet Usage Survey: Statistical tabl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Gwacheon,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Naju, Korea, pp.1-251, 2018.
- [3] C. Steinfield, N. B. Elison, C. Lampe, "Social capital, self-esteem, and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9, No.6, pp.434-445, 2008.
DOI:<https://dx.doi.org/10.1016/j.appdev.2008.07.002>
- [4] H. C. Woods, H. Scott, "#Sleepyteens: Social media use in adolescence is associated with poor sleep quality, anxiety,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Vol.51, no.-, pp.41-49, 2016.
DOI:<https://dx.doi.org/10.1016/j.adolescence.2016.05.008>
- [5] B. A. Primack, A. Shensa, C. S. G. Escobar-Viera, E. L. Barrett, J. E. Sidani, J. B. Colditz, A. E. James, "Use of multiple social media platform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A nationally-representative study among US young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69, No.-, pp.1-9, 2017.
DOI:<https://dx.doi.org/10.1016/j.chb.2016.11.013>
- [6] A. Shensa, C. G. Escobar-Viera, J. E. Sidani, N. D. Bowman, M. P. Marshal, B. A. Primack,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US young adult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Vol.182, No.-, pp.150-157, 2017.
DOI:<https://dx.doi.org/10.1016/j.socscimed.2017.03.061>
- [7] R. S. Tokunaga, "Relational transgressions on social networking sites: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contextual explanations for dyadic strain and communication rules chang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39, No.-, pp.287-295, 2014.
DOI:<https://dx.doi.org/10.1016/j.chb.2014.07.024>
- [8] Y. Xue, Y. Dong, M. Luo, D. Mo, W. Dong, Z. Zhang, H. Liang, "Investigating the impact of mobile SNS addiction on individual's self-rated health", *Internet Research*, Vol.28 No.2, pp.278-292, 2018.
DOI:<https://dx.doi.org/10.1108/IntR-05-2017-0198>
- [9] C. S. Andreassen, S. Pallesen, "Social network site addiction—an overview". *Current Pharmaceutical Design*, Vol.20, No.25, pp.4053-4061, 2014.
DOI:<https://dx.doi.org/10.2174/13816128113199990616>
- [10] Q. He, O. Ture, A. Bechara, "Brain anatomy alterations associated with Social Networking Site (SNS) addiction", *Scientific Reports*, Vol.7, Article number: 45064, 2017,
DOI:<https://dx.doi.org/10.1038/srep45064>
- [11] D. J. Kuss, M. D. Griffiths, J. F. Binder, "Internet addiction in students: Prevalence and risk facto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9, No.3, pp. 959-966, 2013.
DOI:<https://dx.doi.org/10.1016/j.chb.2012.12.024>

- [12] D. Karaiskos, E. Tzavellas, G. Balta, T. Paparrigopoulos, "P02-232 - Social network addiction: a new clinical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Vol.25, supplement.1, pp.855-855, 2010.
- [13] O. Turel, A. Serenko, "The benefits and dangers of enjoyment with social networking website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21, No.5, pp.512-528, 2012. DOI:<https://dx.doi.org/10.1057/ejis.2012.1>
- [14] O. Turel, A. Bechara, "A triadic reflective-impulsive-interoceptive awareness model of general and impulsive information system use: Behavioral tests of neuro-cognitive theory". *Frontiers in Psychology*, Vol.7, Article number:601, 2016. DOI:<https://dx.doi.org/10.3389/fpsyg.2016.00601>
- [15] O. Turel, A. Serenko, P. Giles, "Integrating technology addiction and use: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online auction user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Quarterly*, Vol.35, No.4, pp.1043-1061. 2011. DOI:<https://dx.doi.org/10.2307/41409972>
- [16] C. Cheng, A. Y. L. Li, "Internet addiction prevalence and quality of (real) life: A meta-analysis of 31 nations across seven world region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7, No.12, pp.755-760, 2014. DOI:<https://dx.doi.org/10.1089/cyber.2014.0317>
- [17]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British Medical Journal*, Vol.319, supplement4, Article number:9910351, 1999. DOI:<https://dx.doi.org/10.1136/sbmi.9910351>
- [18] R. A. Davis,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17, No.2, pp.187-195, 2001. DOI:[https://dx.doi.org/10.1016/S0747-5632\(00\)00041-8](https://dx.doi.org/10.1016/S0747-5632(00)00041-8)
- [19] S. E. Caplan, "A social skill account of problematic internet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5, No.4, pp.721-736. 2005. DOI:<https://dx.doi.org/10.1111/j.1460-2466.2005.tb03019.x>
- [20] D. M. Boyd, N. B.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3, No.1, pp.210-230, 2007. DOI:<https://dx.doi.org/10.1111/j.1083-6101.2007.00393.x>
- [21] D. J. Kuss, M. D. Griffiths,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8, No.9, pp.3528-3552, 2011. DOI:<https://dx.doi.org/10.3390/ijerph8093528>
- [22] J. Clement, "Social media - statistics & facts", Social Media & User-generated Content, Statista Facts on Social Networks. c2017[cited January 13, 2017], Available from: <https://www.statista.com/topics/1164/socialnetworks/> (accessed May 22, 2020).
- [23] E. Choi, W. Yeom, S. Lee, S. Kim, C. Lee, J. Kim,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witter and Facebook users", *Proceedings of The HCI Society of Korea Conference*, The HCI Society of Korea, Korea, pp.911-916, January, 2012
- [24] Y. Zhnag, L.S. T. Tang, L. Lung, "Gratification, collective self-esteem, online emotional openness, and traitlike communication apprehension as predictors of Facebook us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4, No. 12, pp.733-739, 2011. DOI:<https://dx.doi.org/10.1089/cyber.2010.0042>
- [25] S. H. Cho, K. H. Suh,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8, No.1, pp.239-250, 2013.
- [26] E. L. Pelling, K. M. White,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lied to young people's use of social networking web sites".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2, No.6, pp.755-759, 2009. DOI:<https://dx.doi.org/10.1089/cpb.2009.0109>
- [27] G. Xu, *The Effects of Facebook Addiction of Colledge Students on their Sociality and Self- Identit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87, 2013.
- [28]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2, pp.261-268, 2012. DOI:<https://dx.doi.org/10.7739/jkafn.2012.19.2.261>
- [29] S. Hurtado, D. F. Carter, A. Spuler, "Latino student transition to college: Assessing difficulties and factors in successful college adjust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37, No.2, pp.135-157, 1996. DOI:<https://dx.doi.org/10.1007/BF01730113>
- [30] L. J. Friedlander, G. J. Reid, N. Shupak, R. Cribbi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tres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8, No.3, pp.259-274, 2007.
- [31] M. Credé, S. Niehorster, "Adjustment to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 quantitative review of it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24, pp.133-165, 2012. DOI: <https://dx.doi.org/10.1007/s10648-011-9184-5>
- [32] J. Balzer-Riley, "Communication in nursing" (8th ed.), p1-422, Seoul: Jeongdam Media, 2018.
- [33] J. J. Arnett,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5, pp.469-480, 2000.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5.5.469>

- [34] I. S. Lee, J. Y. Cho. "A study on social networking servic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5, No.1, pp.22-30. 2012.
- [35] S. H. Jin, "A study on SNS addiction using smart phones", *Korean Association Addition Crime*, Vol.1, No.2, pp.31-49, 2011.
- [36] I. S. Lee, J. Y. Cho, "A study on social networking servic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chool Health*, Vol.25, No.1, pp.22-30, 2012.
- [37] E. J. Oh, S. A. Ahn,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8, No.1, pp.547-561, 2017.
DOI:<http://dx.doi.org/10.22143/HSS21.8.1.31>
- [38] J. H. Kim, Y. H. Lee, "The differences between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net addiction in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anonymity in online, narcissism, depression, anxie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10, pp.27-52. 2018.
DOI:<http://dx.doi.org/10.21509/KJYS.2018.10.25.10.27>
- [39] H. J. Lee, H. K. Kim, "The effect of intoxication in SNS and stress of university life on the adapta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6, pp.3944-3953, 2015.
DOI:<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44>
- [40] S. J. Moon,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Service(SNS) addiction tend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the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8, No.1, pp.23-29, 2018.
- [41] S. S. Baek, J.Y. Cho,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and mental health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77-85, 2016.
DOI:<http://dx.doi.org/10.5762/KAIS.2016.17.7.77>
- [42] R. W. Baker, B. Siryk,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Westo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 [43] S. Y. Jung, J. N.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NS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9, No.1, pp.147-166, 2014.
- [44]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1999.
- [45] J. H. Kong, S. R. Kim, E. J. Oh,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 attachment, SNS addiction and mental health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6, No.4, pp.99-115, 2015.
- [46] A. K. Tsitsika, E. C. Tzavela, M. Janikian, K. Ólafsson, A. Iordache, T. M. Schoenmakers, C. Tzavara, C. Richardson, "Online social networking in adolescence: Patterns of use in six European countries and links with psycho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55, No.1, pp.141-147, 2014.
DOI:<http://dx.doi.org/10.1016/j.jadohealth.2013.11.010>
- [47] Y. M. Lee "SNS addiction tendency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561-568,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561>
- [48] H. O. Jeon, "Effects of academic emotion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n SNS addiction tendency by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6, pp.269-277, 2016.
DOI:<http://dx.doi.org/10.5762/KAIS.2016.17.6.269>
- [49] S. Y. Min,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5, no.4, pp.409-419, 2006.
DOI:<https://dx.doi.org/10.1111/j.1365-2648.2000.01534.x>
- [50] R. Nyland, R. Marvez, J. Beck, "MySpace: social networking or social isolation?", *In Proceedings of the Midwinter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Reno, NV, USA, pp.23-24, February 2007.
- [51] V. Barker, "Older adolescents' motivations for social network site use: The influence of gender, group identity, and collective self-esteem", *CyberPsychology, Behavior*, Vol.12, No.2, pp.209-213. 2009.
DOI:<http://dx.doi.org/10.1089/cpb.2008.0228>
- [52] Z. Zaremohzabieh, B. A. Samah, S. Z. Omar, J. Bolong, N. A. Kamarudin, "Addictive Facebook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Asian Social Science*, Vol.10, No.6, pp.107-116, 2014.
DOI:<http://dx.doi.org/10.5539/ass.v10n6p107>
- [53] E. Çam, O. Isbulan, "A new addiction for teacher candidates: social networks",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11, No.3, pp.14-19, 2012.
- [54] R. A. Elphinston, P. Noller, "Time to face it! Facebook intrusion and the implications for romantic jealous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4, No.11, pp.631-635, 2011.
DOI:<http://dx.doi.org/10.1089/cyber.2010.0318>
- [55] M. D. Griffiths, D. J. Kuss, Z. Demetrovics, Social networking addiction: An overview of preliminary findings, In *Behavioral Addictions: Criteria, Evidence and Treatment*: K. Rosenberg, L. Feder, Eds. Elsevier, New York, NY, USA, 2014, pp.119-141.

차 현 수(Hyun-Su Cha)

[정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산업보건간호학과 (보건학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서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보완대체요법, 대학생,